

담벼락에 그린 마음의 풍경

‘21세기 모네’ 스텔링 루비 국제갤러리 개인전

“범죄와 마약에 찌든 미국 로스 앤젤레스 거리 벽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어요. 매일 저녁 간단들이 벽에 자기들 영역을 표시하죠. 일종의 그래피티(낙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신기하게 도글씨나 그림들이 다 지워져 있어요. 시(市) 소속 청소부들이 새벽에 지우니까요. 그리고 지우는 그 행위에서 남은 흔적과 얼룩이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스타 작가 스텔링 루비(41)는 어깨까지 내려온 그의 긴 머리가 말해주듯 자유분방한 히피 스타일의 남자다. 최근 서울 국제갤러리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위해 방한한 그는 달변가였다.

“1990년대 초에 그림에서 손을 뗐다가 LA 간단의 그래피티 활동을 보고 도시의 병리적인 현상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는 얼룩진 도시의 벽에 영감을 받아 독특한 스프레이 페인팅 세계를 열쳐보인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캔버스에 겹겹이 뿌려다면 물감들이 흘러내리고 섞이고 쌓인다. 몽환적이고 중첩된 이미지는 모든 것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대사회의 또 다른 풍경화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인상주의 회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불현듯 떠오른다.

작가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래전 일본 나오시마 섬에서 모네 작품을 봤는데 그때 건축과 배경, 작품이 어우러진 광경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모네를 염두에 뒀고 수련을 내식으로 표현했지요.”

스텔링 루비는 국내에서 이름이 낮설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스타덤에 오른 작가다. 세계 각국에서 작품 한 점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칠 정도라고 한다.

그가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벼려지고 사라지고 뒤섞이는 존재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병리 현상을 시각적으로 잘 풀어낸 결과다.

갤러리 전시장에 놓인 도자기와 브론즈 조각에서도 그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작가는 쓸모없는 화병과 도자기들을 모아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다. “도자기는 변덕스럽죠.



미국 스타 작가 스텔링 루비가 모네의 ‘수련’에서 영감을 얻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향휘 기자>

美 스타 작가…“뒷골목 벽화에서 영감 얻어”

굽는 과정에서 터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은 도자기와 브론즈 작업은 제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또 작업 과정에서 벼려진 천과 옷, 골판지를 캔버스에 붙이는 콜라주 작업도 눈길을 끈다.

그는 모네뿐만 아니라 예술을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한 요셉 보이스와 투이즈 브루주아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작가는 유년 시절을 펜실베이니아 시골에서 보냈다. 여덟 살 때 기억이 아직도 예술의 원천이다. “동네 근처에 아미시(문명을 거부한 채 자급자족하는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직접 짠 퀼트(이불) 문양에 매료

됐지요. 그것은 저에게 최초의 시각적 경험에었어요.”

그는 스승 격인 폴 매카시처럼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낱낱이 파헤친다.

환상적인 색상들의 화면 뒤에는 간단의 부조리한 현실이 놓여 있는 것처럼 소외되고 잊힌 것들을 화폭으로 끌어온다. 그것이 전통적인 미니멀리즘의 시각 언어와 다른 점이고, 그가 이 시대에 주목받는 이유다.

그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 영국 레이트모던 등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 다수 소장돼 있다.

전시는 5월 10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